

# 여성 결혼 이민자의 다문화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실태와 유아의 어휘력과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Father's Participation in their Children's Fostering and Children's Vocabulary

이민경

전주기전대학교 유아교육과

Min-Kyung Lee(sssch4354@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나이, 교육정도, 평균 월 소득, 직업과 관련된 변인이 유아의 어휘력(CV)에 미치는 영향과 아버지의 유아양육 참여도(FPCF)와 CV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남, 전북에 거주하는 만 3, 4세 다문화 가정 유아 24명의 CV를 평가하였으며,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FPCF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버지의 학력, 평균 월 소득, 직업과 CV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아버지의 나이와 CV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셋째, FPCF와 CV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면담내용도 일부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다문화 가정 아버지 | 양육 참여 | 어휘력 |

###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the effect of the variables (age, education level, average monthly income, occupation) relating to the multi-cultural family father(MF) on children's vocabulary(CV),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participation in their children's fostering(FPCF) and CV. FPCF in 24 MFs and CV were evaluated using the questionnaire, interview.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father's education level, average income, occupation, and CV. FPCF scores. 2)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ather's age and CV. 3)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PCF scores and CV. And some interview examples were illustrated in this paper.

■ keyword : | Multi-cultural Family | Father's Participation in their Children's Fostering | Vocabulary |

## 1. 서론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이며[1],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한다. 최근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자녀에 관한 문제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 또한 언어발달지체, 학습부진 그리고 사회 부적응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2].

접수일자 : 2016년 06월 24일

수정일자 : 2016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0월 24일

교신저자 : 이민경, e-mail : sssh4354@hanmail.net

한국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시아를 국적으로 가진 어머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3],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충분한 언어적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며 자녀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4]. 대부분 다문화 가정 유아들은 일반가정의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노출되며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언어를 습득해 간다[5]. 특히 다문화 가족은 가정 내 의사소통방법에 따라 가정환경의 모든 변인에 영향을 끼친다[6]. 결혼 이민자인 어머니는 유아를 양육하면서 한국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지만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나 적절한 한국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모를 때 자국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유아에게 전달하고자하였지만 유아들은 어머니가 사용하는 모국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낯설어하거나 이상해 하면서 따라하지 않으며 고개를 흔들며 자신의 귀를 막거나 엄마의 입을 가리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7].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유아와의 소통과정이나 상호작용과정에서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은 영아의 놀이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거나 유아의 말을 단순히 따라하는 정도로 반응하는 등의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자신감 없는 어머니들의 태도는 영아와 그림책을 보면서 상호작용할 때나 한글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8].

유아의 어휘력은 개인차가 매우 큰데, 이를 초래하는 환경변인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유아를 둘러싼 가정이다. 가정은 유아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환경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한다. 특히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는 점에서 부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의 어휘발달은 어머니의 언어입력 량과 다양한 어휘사용[9],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행동 Kim & Park, 2010[10] Snow, 1983[11] 혹은 어머니의 민감하고 수준 높은 언어행동 Lee & Kim, 2006[12] Lim, 2002[13]

Yoo, 2010[14]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은 일반 가정의 유아들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저하된 언어자극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이러한 환경은 유아들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5][16].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일반 가정의 유아에 비해 언어발달이 지체됨을 보고하였으며[17-20].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어휘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21-23] 모든 연구에서 검사도구가 다르고, 연령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어휘력이 또래 유아에 비해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auch (1986)[24]는 아버지는 대외적으로 가족을 대표하며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생계부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녀의 중요한 훈육자로서 자녀에게 성취를 독려하고 목표적 행동을 하도록 강화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며, 어머니는 가족의 소비생활을 담당하고 가족원의 정서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애정적, 화해적, 정서적인 표현적 역할을 담당할 때 가족은 가장 기능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부각되는 아버지의 역할은 자상하고, 자녀와 친구 같은 아버지 즉, 양육적인 아버지이다[25].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대가족에서 핵가족 형태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부부가 자녀 양육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증가하였고, 둘째로 기혼여성이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아버지 역할에도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자녀양육과 교육에 더 집중하여 참여하고 있다[26]. 이러한 분위기는 아버지 자신이 인식하는 역할과 참여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이 증가하고 양육활동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27]. 이와 관련하여 Duursma(2007)는 부모의 역할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의 핵심적인 몇 가지 역할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로 통칭하되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역할도 어머니의 역할 못지않게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가 영유아와의 책읽기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영유아의 읽기능력이 향상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 횟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문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28][29]. 또한 아버지와 자녀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상호작용이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법과 유사하며[30], 실제 아버지가 영아기 자녀에게 사용하는 어휘의 범위가 어머니와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31], 일부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탈 맥락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다양 하고 특이한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32], 어머니와는 다른 언어적 기술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33].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Grief(197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들이 양육참여는 신체적인 것보다는 언어적인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욱 자발적으로 개입하고 대화한다고 하였으며[34], Parke(1981)는 양육 참여시간이 어머니에 비해 적다할지라도 아버지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35].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유아기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재인식되고 있고 아버지 스스로가 양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머니에 비해 훨씬 적지만 자녀의 인격형성과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발달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36]. 특히 가족의 맥락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행동과 판단에 빈번한 영향을 줌으로서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부관계는 둘 만의 상호작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행복하고 만족스런 결혼생활이 자녀들에게 건전한 정서 및 인성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37].

이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유아발달에 있어서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와 부모,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와 유아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자녀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재인식되어 왔고, 점차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38][39], 유아의 어휘발달은 어머니의 언어입력 량과 다양한 어휘 사용[40],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행동[41][42], 혹은 어머니의 민감하고 수준 높은 언어행동[43-45]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차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아버지의 영향은 일반 가정보다 유아의 제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어휘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의 대다수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유아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영유아와 더 자주 책을 읽고 한 번에 더 오래 읽으며, 더 많은 책을 읽어주고, 아버지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참여정도가 어머니에 비해 적다는 연구결과[46]로 인해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에서 어머니-유아와의 관계에서 유아의 어휘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많은 언어적 문제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과 가족으로부터의 무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여성 이민자 가정의 경우 유아의 어휘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어머니-유아의 관계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 보다는 아버지-유아의 관계로의 전환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아버지의 변인과 양육참여 실태가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휘력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문화가정 유아에게 언어발달을 위한 효율적인 중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나이, 교육정도, 평균소득, 직업과의 관련변인과 유아의 어휘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유아양육에 대한 참여실태와 유아의 어휘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남,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3,4세 다문화 가정 유아 24명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표 2]. 대상 유아의 선정은 일반 유아의 표현 어휘가 2-3세 사이에 급격히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된 이수정 외, (2008)의 선행연구[47]에 근거하여, 한국어 이해 및 표현 수준이 비교적 낮은 2,3세를 제외하고, 표현 어휘 발달에 있어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3,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으로 다문화 부모생활지도사 로부터 감각적, 인지적, 정서 및 행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유아이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성에 따른 수 및 연령

	3세	4세	전체
남	6	5	11
여	7	6	13
총계	13	11	24

표 2. 연구대상 아버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나이	36 - 40세	2( 8.3)
	41 - 45세	17( 70.8)
	46세 이상	5( 20.8)
	전체	24(100.0)
교육정도	중 졸	7( 29.2)
	고 졸	10( 41.7)
	대 졸	7( 29.2)
	전체	24(100.0)
평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2( 8.3)
	101 - 150만원	4( 16.7)
	151 - 200만원	3( 12.5)
	201 - 250만원	2( 8.3)
	250만원 이상	13( 54.2)
	전체	24(100.0)
직업	판매·서비스	14( 58.3)
	관리직	2( 8.3)
	생산직	8( 33.3)
	전체	24(100.0)

### 2. 연구도구

#### 2.1 아버지의 양육참여 측정 도구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Bigner(1977)[48], Brauch & Barrette, Lamb, (1986)[49]의 연구와 기술형 설문지를 바탕으로 최경순,(1992)[50]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아버지 참여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내용은 여가활동 9문항, 생활지도 9문항, 가사활동 6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참여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는 .93으로 조사되었다.

#### 2.2 유아의 어휘력 검사도구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해·표현 어휘력 검사 도구인 MCDI (The Mac -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 Fenson et al., 1994)를 기초로 임용순(2002)이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어휘목록을 사용하였다[51]. MCDI-K 어휘목록은 총 23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범주는 소리, 탈것, 신체부위, 사람, 의류, 동물, 기구와 방, 가정용품, 장난감, 장소, 시간, 음식, 실외의 것들, 일상생활, 의문사 및 대명사, 조사, 어미, 동사, 형용사, 위치, 보조 용언, 양/수, 접속사이며 통 728개의 어휘로 구성되어있다. MCDI-K는 어머니가 보고하는 것으로 검사자가 직접 설명하고 처음 범주를 함께 표시해 보고 어머니가 작성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한 다음 실시한다.

### 3. 연구절차

#### 3.1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설문지의 적절성 및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보조연구자인 다문화 부모생활 지도사를 사전교육 한 후 연구자와 함께 다문화가정 유아와 아버지 3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매주 1회 이상 가정방문하고 있는 다문화 부모생활지도사와 함께 방문하여 연구자가 연구 방법 및 조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 3.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4년 7월7일부터 8월 22일 까지 연구자와 보조연구자인 다문화 부모생활지도사가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보조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와 유아를 참관하였으며, 아버지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연구자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가 정확하게 또는 유사하게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현 칸에 0, 유아가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단어일 경우에는 이해라는 칸에 0 하도록 설명한 뒤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단어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설문지 및 검사가 끝난 후 연구자는 다문화 부모생활지도사, 어머니, 아버지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관련변인과 유아의 어휘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아버지의 나이, 학력, 직업, 평균 월 소득에 따른 유아의 어휘력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Bonferroni 사후검정을 이용하였다. 아버지의 관련 변인과 유아의 어휘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과 표현어휘, 이해어휘 점수간의 Spearma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어휘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육참여 점수와 표현어휘, 이해어휘 점수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관련변인과 유아의 어휘력과의 관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표현어휘력( $F=1.471, df=2, p=0.206$ ), 이해어휘력( $F=1.471, df=2, p=0.252$ ), 그리고 양육참여점수

( $F=0.188, df=2, p=0.803$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나이와 유아의 어휘력

나이	표현어휘 M(SD)	이해어휘 M(SD)	양육참여 점수 M(SD)
36-40세	575.00 ( 0.00)	520.00 ( 0.00)	79.00 ( 0.00)
41-45세	580.82 (12.04)	530.35 (11.21)	82.18 (10.10)
46세 이상	570.00 (12.04)	523.60 ( 8.11)	79.80 ( 8.56)
전체	578.08 (12.14)	528.08 (10.62)	81.42 ( 9.23)
일원배치 분산 분석	$F=1.703,$ $df=2,$ $p=0.206$	$F=1.471,$ $df=2,$ $p=0.252$	$F=0.188,$ $df=2,$ $p=0.803$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나이와 관련하여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은 일반 아버지들에 비해 몇 살 정도에 결혼을 하시나요?

다문화부모생활지도사 : 다문화가정에서의 아버지는 30대 전에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30대 후반 이후에 결혼을 하거나 45세 이후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바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대부분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응에 따라 자녀에 관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의 성향에 따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면담, 다문화부모생활지도사, 2014, 7, 14)

아버지 : 내 친구들은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많이 늦었죠 (면담, 41세 아버지, 2014, 7, 21)

아버지 : 애들 친구들 중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애가 싫어할까봐 주위에 젊은 아빠들은 어떻게 하나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면담, 46세 아버지, 2014, 8, 11)

표 4.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학력과 유아의 어휘력

학력	표현 어휘 M(SD)	이해 어휘 M(SD)	양육참여 점수 M(SD)
중졸	567.57 ( 6.55)	521.86 ( 6.57)	74.29 ( 7.37)
고졸	567.57 ( 6.55)	525.50 (11.69)	79.00 ( 5.23)
대졸	590.86 (02.04)	538.00 ( 3.61)	92.00 ( 5.63)
전체	578.08 (12.14)	528.08 (10.62)	81.42 (09.23)

  

일원배치 분산분석	F=14.043, df=2, p=0.000	F=6.877, df=2, p=0.005	F=16.526, df=2, p=0.005
Bonferroni 사후검정	중졸<대졸 [평균차이 =23.286; p=0.000]	중졸<대졸 [평균차이 =16.143; p=0.006]	중졸<대졸 [평균차이 =17.714; p=0.000]
	고졸<대졸 [평균차이 =14.357; p=0.006]	고졸<대졸 [평균차이 =12.50; p=0.024]	고졸<대졸 [평균차이 =13.000; p=0.00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아의 표현어휘(F=14.043, df=2, p=0.000), 이해어휘(F=6.877, df=2, p=0.005), 아버지의 양육참여도(F=16.526, df=2, p=0.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Bonferroni 사후검정에서, 대졸학력의 아버지의 유아가 중졸, 고졸 아버지의 유아보다 표현어휘(각각 p=0.000, p=0.006), 이해어휘(각각 p=0.006, p=0.02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대졸학력의 아버지가 중졸 및 고졸학력의 아버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양육참여점수를 나타냈다(각각 p=0.000, p=0.001).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학력과 관련하여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 평상시 애들 아빠가 아이에게 관심이 많이 있나요?

어머니 : 00아빠는 평상시에 말이 없어요, 저나 아이가 물어보면 이야기들 하긴 하지만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면 TV만 봐요 (면담, 중졸 아버지의 아내, 2014, 8, 4)

연구자 : 아이를 키우시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점이신가요?

아버지 : 선생님, 우리 아이가 책은 안 읽고 장남감만 가지고 놀려고 해요, 애들 고모가 책을 많이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책을 잘 읽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면담, 대졸 아버지, 2014, 7, 24)

표 5.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직업과 유아의 어휘력

직업	표현 어휘 M(SD)	이해 어휘 M(SD)	양육참여 점수 M(SD)
판매서비스	584.64 ( 9.44)	532.86 ( 9.18)	85.21 ( 7.60)
관리직(공무원)	577.00 (18.39)	525.00 (18.39)	84.00 (15.56)
생산직	566.88 ( 6.38)	520.50 ( 7.19)	74.13 ( 6.83)
전체	578.08 (12.14)	528.08 (10.62)	81.42 ( 9.23)

  

일원배치 분산분석	F=9.485, df=2, p=0.001	F=4.667, df=2, p=0.021	F=5.099, df=2, p=0.016
Bonferroni 사후검정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평균차이 = 17.768, p=0.001]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평균차이 = 12.357, p=0.020]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평균차이 = 11.089, p=0.014]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표현어휘(F=9.485, df=2, p=0.001), 이해어휘(F=4.667, df=2, p=0.021), 양육참여점수(F=5.099, df=2, p=0.01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Bonferroni 사후검정에서,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유아가 생산직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유아보다 표현어휘(p=0.001), 이해어휘(p=0.020)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생산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양육참여점수를 나타냈다(p=0.014).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직업과 관련하여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시면 아이들과 잘 놀아주시나요?

어머니: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맨날 술을 먹고 와요 마시지 말라고 하면 피곤해서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자버려요, 일이 없는 날이라도 나랑, 애들이랑 놀아주면 좋은데 친구 만나러 나가버려요 그리고 또 술을 먹고 들어와요. (면담, 생산직 아버지의 아내, 2014, 8, 7)

어머니: 퇴근해서 들어올 때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랑 과일이랑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쉬는 날에는 가족이 함께 마트도 가요. (2014, 판매서비스직 아버지의 아내, 2014, 7, 10)

아버지: 애들 엄마가 말은 잘하지만 발음이 이상해서 애들이 물어보면 제가 주로 대답을 해줍니다. 엄마지만 발음이 이상할 수밖에 없죠, 애들 엄마도 함께 따라라라고 해요, 그럼 잘 따라 해요. 애들이 웃죠, 엄마가 말을 잘 못한다고, 애들이 엄마에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면담, 관리직 아버지, 2014, 8, 14)

어머니: 내가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잘 안 가르쳐 줘요 애가 물어봐도 엄마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선생님(다문화부모생활지도사)이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시니까 오시는 날 까지 기다려요. (면담, 생산직 아버지의 아내, 2014, 7, 3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 아버지의 평균 월 소득에 따라 표현어휘( $F=3.816, df=4, p=0.019$ ), 이해어휘( $F=3.546, df=4, p=0.0025$ ), 양육참여점수( $F=2.889, df=4, p=0.05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Bonferroni 사후검정에서, 평균 월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의 아버지의 유아의 101만원에서 150만원인 아버지의 유아보다 표현어휘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p=0.020$ ). 또한 이해어휘는 아버지의 평균 월 소득에 따른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250만 원 이상인 아버지가 101만원에서 150만원인 아버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양육참여점수를 나타냈다( $p=0.030$ ).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평균소득과 관련하여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평균 월 소득과 유아의 어휘력

아버지 평균소득	표현 어휘 M(SD)	이해 어휘 M(SD)	양육참여 점수 M(SD)
100만 원 이하	575.00 ( 0.00)	520.00 ( 0.00)	79.00 (0.00)
101~150만원	561.75 ( 2.06)	516.25 ( 5.50)	70.25 (8.22)
151~200만원	577.67 (13.28)	533.67 ( 6.35)	79.67 ( 4.62)
200~250만원	588.50 ( 2.12)	540.00 ( 2.83)	82.00 ( 1.41)
250만 원 이상	582.08 (11.22)	529.85 (10.43)	85.54 ( 9.00)
전 체	578.08 (12.14)	528.08 (10.62)	81.42 ( 9.23)
일원배치 분산분석	$F=3.816, df=4, p=0.019$	$F=3.546, df=4, p=0.0025$	$F=2.889, df=4, p=0.050$
Bonferroni 사후검정	(101~150만원) <251만 원 이상 [평균차이 =20.327, $p=0.020$ ]	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음.	(101~150만원) <251만 원 이상 [평균차이 =15.288, $p=0.035$ ]

연구자: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어머니: 다른 집 애들은 학원도 보내고 학습지도 하는데... 우리는 못해요. 선생님(다문화부모 생활지도사)이 오셔서 우리 애들에게 책도 읽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면담, 101~150만원 아버지 수입, 2014, 7, 24)

표 7.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관련변인과 유아의 어휘력과의 관계#

	나이	학력	소득	직업
표현어휘	-0.302	0.710**	0.426*	-0.655**
이해어휘	-0.053	0.555**	0.251	-0.488*

#: Spearman 상관계수. \*:  $p < 0.05$ , \*\*:  $p < 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학력 수준과 유아의 표현어휘(상관계수=0.710,  $p < 0.01$ ), 이해어휘(상관계수=0.555,  $p < 0.001$ )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평균 월 소득과 유아의 표현어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상관계수=0.426,  $p < 0.05$ ). 아버지

의 직업과 표현어휘(상관계수=0.655,  $p < 0.01$ ), 이해어휘(상관계수=-0.448,  $p < 0.05$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 2.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유아양육에 대한 참여실태와 유아의 어휘력과의 관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양육참여점수와 유아의 표현어휘(상관계수=0.853,  $p < 0.001$ ), 이해어휘(상관계수=0.828,  $p < 0.001$ )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유아의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점수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상관계수=0.905,  $p < 0.001$ ).

표 8.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유아양육에 대한 참여정도와 유아의 어휘력과의 관계#

	표현어휘	이해어휘	양육참여점수
표현어휘	1.000	0.905*	0.853*
이해어휘	0.905*	1.000	0.828*
양육참여점수	0.853*	0.828*	1.000

#: Pearson 상관계수. \*:  $p < 0.001$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유아양육과 관련하여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 아이를 양육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 도와주시다고 생각세요?

다문화부모생활지도사 : 일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지만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성향에 따라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은 아버지는 일반 가정의 아버지와 똑 같다.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는 잘 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극과 극으로 나뉘지는 것 같아요 (면담, 다문화부모생활지도사, 2014,7,31)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관련변인과 유아의 어휘력과의 관계에서 연구대상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어휘력, 양육참여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구대상 아버지의 연령대가 36-40세 2명(8.3), 41-45세 17명(70.8), 46세 이상 5(20.8)으로 30세 이전의 아버지가 없어 연령분포가 좁고, 연구대상의 70.3%가 41-45세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기의 아버지가 대다수의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대상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에 따른 어휘력과 양육참여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졸학력의 아버지가 중졸, 고졸 아버지보다 표현어휘, 이해어휘, 양육참여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관리직 및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한 아버지가 생산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표현어휘, 이해어휘, 양육참여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이 불안정한 생산직(청소부, 가정부, 일일 노동자, 행사)보다는 관리직(공무원) 및 판매서비스직(판매원, 점원, 운전기사, 전기공, 미용사)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정된 근무시간과 출퇴근으로 유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어휘력 및 양육참여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버지의 평균소득에 따른 어휘력과 양육참여점수 또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유지영 (2009)의 저소득 가정의 영아의 어휘력 점수[52]가 중류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호수진(2007)의 연구결과[53]보다 표현어휘는 약 72점, 이해어휘는 약 83점이 낮은 연구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의 조직이 유아의 언어능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오성숙(201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54]. 250만원 이상의 아버지가 101만원-150만원인 아버지보다 표현어휘력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이해어휘는 평균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양육참여점수는 250만원 이상인 아버지가 101만원에서 150만원인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둘째,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유아양육에 대한 참여실



태와 유아의 어휘력과의 관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점수가 높을 수록 유아의 표현어휘 점수 및 이해어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Grief(1979)의 연구[55]에서 아버지들이 신체적인 것보다는 언어적인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욱 자발적으로 개입하고 대화하며, 양육 참여시간이 어머니에 비해 적다할지라도 아버지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Parke(1981)의 연구결과[56]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에게 더 반응적이고 친밀감을 많이 표현한다는 최지희(2001)의 연구[57]와 오민영(2014)의 아버지의 양육 참여 실태와 유아의 놀이성[58], 최지희(2001)의 아동의 또래 유능성[59], 손재익(2010)가족탄력성[60]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 가족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또한 유아의 어휘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아버지가 다문화 가족이 아닌 아버지에 비해 부부 중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비율은 높으나, 양육태도나 양육참여정도 등 양육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난다는 권미경(2014)의 연구 결과[61]는 다문화 가족 아버지를 위한 바람직한 양육태도나 참여방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62]는 이윤정(2010)연구에서처럼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이 주로 여성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것에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남편, 시부모, 자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의 양육 참여 실태와 유아의 어휘력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대상 수와 전남과 전북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3, 4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 그리고 좀 더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 대상 유아는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지만 어린이집을 다닌 개월 수, 유아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및 교실환경이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1]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이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 조사 및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3] 배소영, 김근영, 정경희, 김효정,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발달지원자 설문을 통해 본 아동의 언어 환경 및 언어발달실태,” 언어치료연구, 제18권, 제4호, pp.165-184, 2009.
- [4] 김안나,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환경변인과 유아기 자녀들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5] 김지숙, 김선영, 이현정, “책읽기 상황에서 나타난 다문화 가정 영아와 어머니간의 상호작용분석,” 언어치료연구, 제20권, 제4호, pp.23-43, 2011.
- [6] 오성숙, 이은경, “다문화가족 자녀 어머니의 개인 변인에 따른 가정환경,”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174-175, 2013.
- [7] 권경숙,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영아 양육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4권, 제1호, pp.29-58, 2011.
- [8] 김안나,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환경변인과 유아 자녀들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9] Y. K. Chang, G. Y. Lee, G. J. Kwak, and H. R. Sung, “Relations of maternal linguistic inputs to lexical development of Korean infant,” 314 *The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Vol.16,

- No.4, pp.227-241, 2003.
- [10] M. S. Kim and S. J.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mother's teaching behavior, and 18 to 24-year-old infant's vocabulary ability according to SES of families," *The journal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31, No.4, pp.15-27, 2010.
- [11] C. E. Snow, "*Literacy and language: Relationships during the preschool year*,"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53, pp.165-180, 1983.
- [12] K. Y. Lee and M. S. Kim, "Mother-child interaction in picture-book reading and children's language ability among low-income," *Journal of ARAHE*," Vol.13, No.1, pp.39-49, 2006.
- [13] Y. S. Lim, *Korean infants' vocabulary development and mothers' verb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14] J. Y. Yoo, *Relation of home literacy activity and mothers' verbal behavior to infants' vocabulary development in low-income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10.
- [15] 이현주, *다문화 가정 영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특성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6] 정연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 언어 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7] 강금화, 황보명, "5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언어, 읽기, 음운인식능력에 관한 연구," 제19권, 제1호, pp.143-158, 2010.
- [18]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 제8권, 제1호, pp.137-161, 2009.
- [19] 정옥란,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 관련 상관연구," *언어치료연구*, 제17권, 제1호, pp.81-102, 2008.
- [20] 황상심, "다문화가정아동의 5세 전후 집단 간 언어 발달 특성 비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0권, 제3호, pp.265-281, 2009.
- [21] 황상심, 정옥란, "경상북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 특성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제13권, 제2호, pp.174-192, 2008.
- [22]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 연구," *특수교육*, 제8권, 제1호, pp.137-161, 2009.
- [23] 김영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취학전 아동의 언어 특성 및 CAI를 활용한 부모훈련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4] G. K. Brauch and R. C. Barnett,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pp.578-585, 1986.
- [25] 김혜영, 황정미, 서보영, 김동기, "남성의 부성 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 제9권, 2008호, 2008.
- [26] 임수경, 김명순, "만 2세 영아-어머니, 영아-아버지의 그림책 읽기행동 및 가정 문해 환경과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34권, 제3호, pp.1-19, 2013.
- [27] M. T. Morman and K. Floyd, "hanging of fatherhood" effects on affectionate communication, closeness, and satisfaction in men's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 and their son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66, No.4, pp.395-411, 2002.
- [28] 이나리, *아버지의 문해발달태도 및 가정문해경과 유아의 어휘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9] 임수경, 김명순, "만 2세 영아-어머니, 영아-아버지의 그림책 읽기행동 및 가정 문해 환경과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34권, 제3호, pp.1-19, 2013.
- [30] 임수경, 김명순, "만 2세 영아-어머니, 영아-아버지의 그림책 읽기행동 및 가정 문해 환경과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34권, 제3호, pp.1-19, 2013.

- [31] M. E. Lamb and C. Tamis-LeMonda, *The role of the father; An introduction*,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4th ed), pp.1-31, New York: Wiley, 2004.
- [32] N. Bernstein-Ratner, "Patterns of parental vocabulary selection in speech to very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Vol.15, pp.481-492, 1988.
- [33] N. Pancsofar and L. Vernon-Feagans, "Mother and father language input to young children : Contributions to later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7, pp.571-587, 2006.
- [34] Grief, J. B, Fathers, "children and joint custody," *American Journal of Othopsychiatry*, Vol.49, pp.311-319, 1979.
- [35] R. D. Parkd, *Father*, Mass: Harvard Univ. Press, 1981.
- [36] 최경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37] 정승희,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언어유형*,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8] K. Y. Lee and M. S. Kim, "Mother-child interaction in picture-book reading and children's language ability among low-income," *Journal of ARAHE*, Vol.13, No.1, pp.39-49, 2006.
- [39] N. Pancsofar and L. Vernon-Feagans, "Mother and father language input to young children : Contributions to later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7, pp.571-587, 2006.
- [40] Y. K. Chang, G. Y. Lee, G. J. Kwak, and H. R. Sung, "Relations of maternal linguistic inputs to lexical development of korean infant," 314 *The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Vol.16, No.4, pp.227-241, 2003.
- [41] M. S. Kim and S. J.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mother's teaching behavior, and 18 to 24-year-old infant's vocabulary ability according to SES of families." *The journal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31, No.4, pp.15-27, 2010.
- [42] C. E. Snow, *Literacy and language: Relationships during the preschool year*.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53, pp.165-189, 1983.
- [43] K. Y. Lee and M. S. Kim, "Mother-child interaction in picture-book reading and children's language ability among low-income," *Journal of ARAHE*, Vol.13, No.1, pp.39-49, 2006.
- [44] Y. S. Lim, *Korean infants' vocabulary development and mothers' verb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45] J. Y. Yoo, *Relation of home literacy activity and mothers' verbal behavior to infants' vocabulary development in low-income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10.
- [46] A. E. Duursma, *Parental bookreading in low-income families : Differences and mothers in frequency and style of reading and the impact on children's language and literacy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07.
- [47] 이수정,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 능력 연구, K-BNT-C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48] M. M. Binger, "Attitudes to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6, No.2, pp.98-106, 1977.
- [49] G. K. Brauch and R. C. Barnett,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pp.578-585, 1986.

- [50] 최경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51] 임용순, *한국영아의 어휘발달과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52] 유지영, *저소득 가정의 문해활동 및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영아의 어휘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53] 호수진, *어머니의 문해신념 및 가정문해환경이 만2세 영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54] 오성숙,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 자극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제13권, 제2호, pp.522-531, 2013.
- [55] J. B. Grief, “Fathers, children and joint custo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49, pp.311-319, 1979.
- [56] R. D. Parkd, *Father*, Mass: Harvard Univ. Press, 1981.
- [57] 최지희,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58] 오민영, *아버지 양육 참여도와 만2세 영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59] 최지희,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60] 손재익,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pp.89-109, 2010.
- [61] 권미경, *육아정책 Brief 28호*, 육아정책 연구소, 2014.
- [62] 이윤정,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한국콘텐츠학회, 제10권, 제5호, pp.370-378, 2010.

저 자 소 개

이 민 경 (Min-Kyung Lee)

정회원



- 2001년 8월 : 경희대학교 아동학과(박사수료)
- 2006년 9월 ~ 현재 : 전주기전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가정유아, 그림책 읽어주기